

09월호

Contents

한 . 일 국제세미나	2
자립생활기술포럼 - 금전관리 교육, 정보화기기 활용교육, 미술심리상담교육	6
제3차 장애인활동지원인 자체교육	11
(자립생활주제) 8월 달 복날을 맞이한 ‘삼계탕’ 의식	13
(칼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17
이달의 정보	19
이달의 시	21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2
광고	23



2017년 한·일 국제세미나

<지적/발달장애인과 자립생활>

주영경

2017년 9월 13일(수) 14:00 ~ 17:00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는 강북센터 주최로 한일 국제세미나 <지적/발달장애인과 자립생활>를 진행하였다.

일본패널 와세다대학교 오카베 코우스케 교수님, 일본DPI 의장 보좌 최영번님..



한국패널 강북장애인부모회 최미경 고문, 한국공감훈련 위드유 원희진 대표, 강북센터 자립생활주택입주자 김옥영님까지 총 5명 패널을 섭외함으로써 그렇게 세미나 첫 준비 단계가 시작되었다.

5월부터 한국DPI를 통해 패널 섭외 및 발표 요청, 진행일정, 축사요청 등 다방면으로 많은 협조를 받으며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세미나 1회, 참여자 100명을 목표로 진행된 이 사업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일본 패널의 입국~출국, 세부일정, 식사, 숙박, 발표원고 취합 및 자료집 제작이 완료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1차적으로 실무자끼리 논의하여 세부일정을 계획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계획과 틀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장님 외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순조롭게 준비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사업진행 4개월 전인 5월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타 사업과는 다르게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 9월이 다가왔다.

안 올 것 같던 9월이 온 것이다.

세미나까지 10일가량 남았을 때 '이제 정말 코앞으로 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게 파고들었다.

센터 내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이런저런 손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9월 12일(화) 소장님, 국장님, 영훈선생님, 지수선생님과 함께 김포공항으로 일본패널 마중을 갔다.

일찍 출발한 덕에 차가 막히지는 않았으며 기다릴 겸 공항 푸드코트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뒤, 1층에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렇게 10분, 20분... 조금 지났을 무렵 오카베 코우스케 교수님과, 최영번님을 만나 뵈게 되었다.

초면이라 숙소로 돌아가는 내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즐거운 분위기에서 세미나 진행 일정을 확인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첫 날은 그렇게 끝이 났다.

9월 13일 수요일 ! 드디어 세미나가 다가왔다.

두근
두근두근
두근 두근두근

강북센터에 입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았던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커 걱정도 많았지만 든든한 지원군 국장님 덕분에 행사당일까지 정말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다.

홍보담당 난희주임님께서 언론사, 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복지관 등 여러 차례 홍보를 해주심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렇게 한일 세미나 당일이 다가왔다.

국장님의 전반적인 일정안내 후 소장님 축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와세다대학교 오카베 코우스케 교수님의 <일본의 자립을 위한 가족지원 및 지원정책> 발표주제가 뜨거운 박수 속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어로 발표를 하다 보니, 통역자가 꼭 필요했으며 일본패널 통역은 원희진 대표님께서 맡아주셨다.

50분간 발표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즉 진행되고, 나머지 20분은 오카베 코우스케 교수님 아들 료스케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였다.

그렇게 최미경 교문, 최영번 의장보좌, 원희진 대표, 김옥영님 차례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2017년



한일 국제세미나는 끝이 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주, 대전 등 타 기관에서도 많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세미나 발표주제와 내용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한일 세미나가 잘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발표에 임해주신 패널 분들과 스텝, 자원봉사자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2017년 한일 국제세미나 와세다대학교 오카베 코우스케 교수님, 일본DPI 최영번 의장보좌, 최미경 고문, 한국공감훈련 위드유 원희진 대표, 강북센터 자립생활 주택 김옥영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참여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과, 스텝분들 감사합니다.



자립생활기술교육 - 금전관리 교육과 정보화기기 활용교육, 미술심리상담 교육

문지수

자립생활기술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9월 08일 금요일에 진행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에 진행하는 금전관리 교육은 ‘가브리엘 작업장’ 에서 단체로 신청하여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다.



금전관리 교육의 강사로 중앙인재교육개발원의 외래 강사이신 ‘권세호 강사’ 님이 오셔서 희소성 원리, 기회비용, 용돈의 개념과 쓰임새 등 금전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실생활에서 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여러분은 돈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10원은 40원, 100원도 40원, 500원은 100원..한 해 동안 돈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1000억입니다. 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랍죠?”

“여러분, 워렌 머피스 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 사람은 자녀랑 여행을 갔을 때 쓴 비용이 60억을 지출하였어요.”

“놀랍죠?!”

관찰력 테스트로 가볍게 시작한 후, 조기 경제 교육의 필요성과 라이프 사이클 분석, 돈과 라이프 사이클의 연관성 등을 알려주었고, 그 외 저축 투자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저축은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 투자는 큰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권세호 강사님은 강의 참석자분들이 발달 장애인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강의를 진행하셨다.



권세호 강사님은 금전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 보드게임을 실행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였고, 강의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자, 이제 게임을 해볼 거예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에 따라 말을 움직이면 됩니다.”

“사다리와 미끄럼틀이 있으면 내려가야 하고요. 여기 이 네모 칸 카드가 미션 카드입니다.”

강사님으로부터 게임 규칙을 듣는 참여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임에 열중하였던 참여자들은 금전관리 교육 강의를 끝나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며 다음에 또 이런 강의를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며 싱글벙글 미소를 지었다.



9월 15일 금요일, 이번 정보화기기 활용교육 강사님은 작년에 오셨던 정보화기기 활용교육 강사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종구 강사님(SNS 소통 연구소)이시다.

“안녕하세요. 전 이종구라고 합니다. 이번 정보화기기 활용교육을 진행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은 가볍게 참여자와 이야기꽃을 피운 후,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를 하였다.

“저희 일상 속에서 흔히 바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음료수 병에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바코드입니다~. 이번엔 바코드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강사님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처음 접해본 바코드 만들기 작업이라서 해매셨던 참여자분들도 계셨지만, 금방 적응하셔서 신기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단색으로 바코드를 생성해보기도 하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또 두 가지 색 이상을 넣어 그라데이션으로도 만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해 바코드 만들어 해보았다.

다음은 카카오톡에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지만, 카카오톡에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카카오톡에 콜택시를 부를 수 는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



카카오톡 내 위치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보내어 그걸 통해 택시를 불러보거나 음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보는 등 다양한 숨겨진 기능을 접해 볼 수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대부분이어서 처음엔 참여자 분들이 어려워하셨으나 금방 강사의 말대로 잘 따라 하셨다.

그 외엔 이미지 편집하거나 합성해보는 어플을 직접 사용해보았다.

참여자들은 서로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보는 재미에 즐거워하시며 신기해했다.

9월 22일에 진행되었던 ‘미술심리상담 교육’ 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일과 시간에 시작하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미술심리상담 교육의 첫 시간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며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거예요~.”

참여자들은 강사님의 지도에 따라 도화지에 연필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였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상상해보며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다.

“와아~! 굉장해요, 여러분 잘 그리시네요!”

나는 감탄하며 참여자들의 열심히 그린 그림을 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린 그림에 대해 얘기해보아요~.”

주몽재활원의 원생인 공선진씨를 첫 번째 타자로 하여 홍미숙씨를 마지막 타자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해보았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자신이 꿈꾸는 자립생활 또는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스케치를 하고 색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강사님은 돌아다니면서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참여자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였

다.

“저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제가 꿈꾸는 자립생활을 이려고요. 그래서 꼭 이루고 싶어요.....”

“저는 평소 제가 관심 있는 것들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열심히 스케치를 한 후, 색깔별로 있는 알록달록한 아크릴 물감에 물을 적신 후 붓을 이용해 스케치한 그림에 색칠을 하였다.



“다들 그림 잘 그리시네요, 멋져요!”

“색깔을 입히니까 예쁘고 멋진데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이야기를 해보며 서로의 그림에 대해 이해를 해보고 박수를 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제3차 장애인활동지원인 자체교육

오재준

2017년 9월 1일, 가든타워 17층 교육 및 프로그램실에서 오전 10시, 오후 2시 나누어 교육을 진행 하였다. 지난 8월에 진행한 2차 교육에는 개인정보보호와 성폭력 예방교육, 응급안전교육과 구비추가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번 3차 장애인활동지원인 자체교육은 부정수급 관련된 자세한 지침과 모니터링 진행방법 및 구형단말기에 교체와 일정표와 서류작성에 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이 있었다.



부정수급에 관한 지침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활동지원인 선생님들께서는 광범위한 부정수급에 대해 잘 모르셨고 정확한 지침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부정수급은 몇 가지 예로 들면 ①활동지원인이 이용자와 같이 있지 않고 혼자서 이용자에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허위로 결제하는 행위, ②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③이용자와 활동지원인이 단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 진행방법에 대해 교육을 드렸는데 모니터링은 매달 일정표 및 주간업무보고를 제출을 하지않은 활동지원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에 상태확인 과 활동지원인에 정상적인 서비스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다. 또한 이상결제를 한 활동지원인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이상결제는 심야결제와 연속결제가 있다. 심야결제는 결제

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이고 연속결제는 한 이용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3분 이내에 결제를 진행한 것을 말한다. 추가로 교환결제도 포함되는데 교환결제는 장애인의 부모(가족)끼리 서로 교차로 결제하는 행위이다. 즉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족이 타인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로 카드를 교차결제하는 행위이다.



활동지원인분들에게 국민건강연금공단 지침에 따라 일정표와 주간업무보고 등 서류작성에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내년에 우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정표 및 주간업무보고에 중요성을 활동지원인들에게 설명해 드렸다. 일정표는 한 달 동안 활동지원인이 어떻게 서비스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하여 월초에 센터에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주간업무보고는 매주 센터에 방문하여 이용자에 건강상태 및 사회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신체활동지원 중 진행한 서비스 역영에 대해 작성을 하며 서비스 진행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주간업무보고에 작성해 한다. 또한 센터 지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인분들께 일정표와 주간업무보고는 부정수급을 예방하며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실하게 제출하셨으면 한다.



8월 달 복날을 맞이한 ‘삼계탕’ 외식

김다희

지난 8월 7일 코디네이터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처음 입사를 하여 자립생활 주택 입주자분들과의 첫 만남을 가진 후 혼자 맡게 되는 프로그램 활동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다. 외식문화프로그램의 음식메뉴는 주택 입주자 분들 중 김옥영 씨의 의사를 반영하여 치킨으로 메뉴를 정하려 하였으나, 복날이 다가오니 국물이 있는 삼계탕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와 ‘복날을 맞이한 삼계탕 먹기’로 주제를 정하였다.

프로그램에 앞서 장소선택과 입주자분들의 참여여부를 체크하였고, 프로그램 당일 날 주택입주자 분 중의 한 분인 신학수 씨가 장염에 걸려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동휠체어 이용하는 김옥영 씨를 위해 좌식이 아닌 테이블 식당으로 장소를 선정하였고, 비교적 주택과 가까운 거리의 식당 이었으면 좋겠다는 입주자 분들의 의견을 모아 강북구청 근처의 ‘수유 지호 한방삼계탕’이라는 식당으로 장소를 정하였다.

하지만 장소를 정하고 난 뒤 예약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였는데, 말복인지라 식당 예약이 불가하고 사람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전 날 활동보조인 선생님들과 입주자분들과 다시 일정을 조율 한 뒤 8월 11일 13시에 맞춰 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당일 날, 폭염주의보가 떠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입주자분들이 약속시간 보다 일찍 와 대기 번호를 먼저 받아 놓고 식당에

서 기다리고 있어 비교적 빨리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식당은 좌식자리와 테이블 자리가 섞여 있는 공간으로 식당자체의 공간이 협소하였고 그로인해 김옥영 씨의 전통휠체어가 상에 맞게 잘 들어가지 않아 테이블에 앉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사람이 많아 휠체어에 맞게 테이블을 길게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웠던 점이 있었지만 김옥영 씨가 상황에 맞추어 잘 대처를 해주셔서 나로서는 감사함을 느꼈다.



본인이 원하는 음식메뉴를 정하고 전달하는 과정 중에 식당 안이 너무 시끄러워 본인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리지 않아 의기소침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며 말하기를 꺼려하셨다. 복날이 아닌 다른 날 이었으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 비교적 입주자분들이 말을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못내 아쉬웠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삼계탕이 나오고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이 행복해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우영 씨는 김치를 많이 찾는 모습을 보였고, 김옥영 씨는 국물을 많이 찾는 모습을 보이며 각자 맛있게 식사를 마쳤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입주자분들의 의견에 따라 수유역 근처의 베스킨라빈스를 방문하여 초코 아이스크림을 배부르게 먹으며 입주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던 것 같다.

기분 좋은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 후 김옥영 씨와 헤어지고 난 뒤 정우영 씨는 염색을 하러 미용실

을 방문하였고, 우영 씨가 원하는 염색을 한 후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 나도 덩달아 같이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다.

정우영 씨는 염색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원하던 핸드폰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미루어졌지만, 하고 싶던 일들 중 자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염색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 우영 씨 스스로도 염색을 계기로 본인의 금전 상태에 대해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도 입주자분들이 본인의 자립생활에 대해 지금처럼 의지를 가지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동현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1995년 이후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 동안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수용보호 위주의 정신보건정책에서 1995년 말에 제정한 정신보건법의 정신에 따라 재활과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며, 정신질환의 감소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정신보건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 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정신건강이란 용어는 유동적이고 애매한 개념이 되지만 보편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안녕과 건전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된다. 이에 반하여 정신장애는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이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되면서 그 의미 규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신질환이란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인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 종류에는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우울장애가 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천적 요인은 감각 발달의 차이, 언어 및 정서장애, 인지장애, 신경증 및 정신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사실은 쌍생아 연구와 친족 간의 정신질환 발병률 및 경험적 유전 예후에 관한 정보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주커만의 연구에서도 신경증과 정신증, 흥동성에 있어 이란성 쌍생아들 보다 일란성 쌍생아들간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신건강의 문제에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후천적 원인은 심리적 원인과 사회적 환경 변인이다. 심리적 원인이란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고통이 심하다 보면 정신장애가 생긴다는 것이다. 설리번은 정신장애가 초기 대인관계, 특히 모자 관계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말 역시 소위 분리, 개별화 과정을 통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분화되어 가는 과정의 실패가 정신장애의 위험성을 가중시켰다고 말한다. 통제 연구법을 통해 분석한 정신장애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

향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정상인의 가족과는 다른, 부모의 행동 양식이 나타났다. 그것은 의사소통 방식이 애매하고 갈등 수준이 높았다는 점이다. 비정상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정신장애의 비율이 증가되었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장애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회적 환경 변인으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건강성, 국가의 정치 문화적 수준 및 정치, 경제,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분위기도 그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 번째, 이념갈등, 정치 갈등, 지역갈등, 무책임한 독선주의, 부도덕한 정치문화와 기업병리 등도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 분노와 적개심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의 악화, 생리적 변화, 생산성 저하, 집중력 손상, 부정적 정서 등을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재발과 재입원이라는 회전문현상을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만성화의 경로를 걷게 되고, 일차적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한 후에도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심리사회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계속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각이 장애인고용의 원천적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추정 장애인수를 근거로 한 통계만 보더라도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국민의 4배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체국민에 비해 2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어느 정도 직업능력이 남아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워 취업의지를 상실한 장애인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실제로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 고령 장애인과 장애인이 많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 사회의 부족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장외의 출·퇴근을 어렵게 하는 모든 사회적 환경의 미비 때문에 장애인고용이 어려워지고 있고, 고도의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로부터 소외된 정신 장애인은 "정보 수용"의 보장 없이는 평등한 사회참여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중증장애인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월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정신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은 자존감을 높이고,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증상을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여성 정신장애인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일에 배치되지 못하고 많은 정신 장애인이 일용근로자로 일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아 직장을 다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렵다. 직업 재활을 통하여 취업 성공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정신 장애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기도 한다. 정신장애인 일을 밝히면 고용주가 갑자기 난색을 표하며,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 는 잘못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일이다.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에 있어서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장애인들은 제한된 교육과 사회 환경에서 사회로부터 소외 당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현대사회에 통합하고,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다양한 기초 생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 공영 주차장 관리나 보육지원 업무 등 장애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수입 사업이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이 각자의 적성에 맞는 건강 도우미사업, D&D 케어 사업, 장애인 복지관 환경정비사업, 환경 도우미 사업 등에 참여하여 보람과 소득창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과 전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행정 업무 보조 수행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소득창출에도 기여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다 가시기를 기다린 후에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회에 적응하기에 정신장애인의 속도는 느리다. 아일랜드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직업재활 훈련을 받거나 낮 병원 프로그램에 다니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등 정신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좋은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사회적인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적절한 지원 제도를 시행해야 하고 기초생활 수급권 자격이나 장애 등급 재판정을 할 때, 정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하여야한다.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이원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단일화 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하며 특수학교교육과정은 직업에 대한 기초교육만을 그리고 전문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문제점과 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 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위한 일상생활기술과 대처방안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달의 정보

2017년 제12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개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양원태)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 연합뉴스TV(대표: 박노황)와 공동주최하여 '제12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2006년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란 슬로건 아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주관으로 시작되었으며 매년 시각, 제품, 환경 및 실내등의 부문에서 500~60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고 1,0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의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 출품 부문은 자유주제(▲제품 및 인터랙션 디자인 ▲환경, 건축 및 실내디자인 ▲콘텐츠 및 UX 디자인)와 특별주제(▲공동주택 주거환경디자인)로 나뉘며 1차 예선과 2차 본선을 거쳐 12월에 최종발표 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주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거주자중심의 공동주택을 구현하고자 '공동주택 주거환경디자인'을 주제로 하였으며 다양한 거주자의 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주거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한다. 1차 예선접수는 9월 27일(수)~10월 12일(목)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공식 홈페이지(www.udconte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4>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시작하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이 당사자 방문 조사... 맞춤형 복지 준비

서울시는 이번 달~오는 12월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약 1만8,000여 명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해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생활을 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득이 사건과 같이 가정 내 혹은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연계하려는 취지도 있다. 시에 따르면 발달장애는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의 장애다. 발달장애인은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돼있고,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5~2016년, 2년 연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원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한 사례도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상생활 실태 등. 재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성된 약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본 조사에 앞서 지난달 말에 관악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사방법 및 문항을 개선했다.

또한 설문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조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설문조사에 필요한 전문 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서울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 관리되며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대의심 또는 소재불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와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별도 조치할 계획.” 이라며 “복지사각지대 및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한 후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3년 간격으로 시 거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로 대상을 나눠 연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를, 2019년도에는 그 외 유형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남들이 별로라고 했던 영화를 봤다.

남들이 맛없다고 한 음식점에 갔다.

영화는 재밌었고 음식은 맛있었다.

행복의 기준은 남들이 아니다.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다.

- 어라운드 '오늘, 내 마음을 읽었습니다.' 中 -

자립생활기술실천 발달장애인 힐링캠프 ‘쉼터’ 참여자 모집합니다.

강북장애인지립생활에서는 자립생활기술훈련의 일환으로 자립생활기술실천 발달장애인 힐링캠프 ‘쉼터’를 2017년 10월 26일(목) ~ 10월 27일(금) 1박 2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힐링캠프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및 질 높은 휴식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내 용
사업명	발달장애인 힐링캠프 ‘쉼터’
일 시	2017년 10월 26일(목) ~ 10월 27일(금) 1박 2일
장 소	대성리 청운캠프 (오전 11시까지 상봉역 대합실 도착!)
참가 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장애인 3명, 보호자 3명, 총 6명)
참가 기준	발달장애인 보호자 동행 필수 (보호자 동행이 어려울 경우, 기관에 활동보조인 사전 요청바람)
참가비	무료(교통비 제외)
신청 기간	2017년 10월 10일(화) ~ 10월 20일(금) 오후 4시까지
선정 발표	2017년 10월 20일(금) 오후 5시
신청 방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hanmail.net 및 사무실(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참가신청서, 복지카드사본)
기타 문의	강북장애인지립생활센터 ☎ 02-908-7776 / 담당자 주영경 010-2832-0836 서울센터지원사업부 ✉ kbcil@cum.net

- 위 일정은 센터 상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